

한국 풍수지리학의 기원에 관한 고찰

- 고창 고인돌 입지분석을 중심으로 -¹⁾

The Origin of PungSoo-Geography in Korea

조기호(공주대학교 지리학과, ghjo@kongj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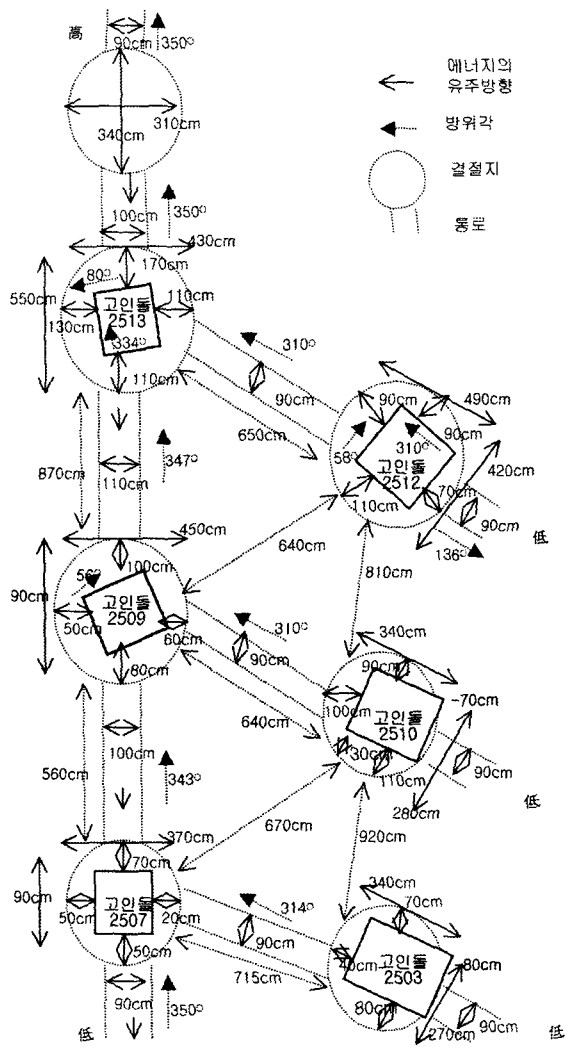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 교과서들의 “국토인식과 지리정보” 및 “장소의 인식과 입지결정” 단원을 분석해보면, 일반적으로 한국의 풍수지리학이 중국에서 전래되었으며 신라 말부터 한반도에서 입지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으로 교육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 고인돌문화권의 대표적인 고인돌 밀집지역중의 하나인 고창 지역에서 대규모 고인돌의 입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한 대규모 고인돌들은 모두 한반도 4국시대부터 풍수지리학의 혈치입지론이 적용되어 축조된 사찰이나 분묘의 입지혈처와 동일한 혈처 안에 입지되어 있었다.²⁾ 따라서 이 고인돌들은 일정한 입지론이 적용된 체계적인 입지선정과정을 거쳐 그 축조 위치가 결정되었으며, 입지선정기준은 혈치입지론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입지선정방법은 당시의 BPE방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동북아 고인돌문화권의 고창지역에는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걸쳐 이미 고인돌 입지선정모델이 설정된 고인돌풍수지리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동북아 고인돌문화권의 전 지역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지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고창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국제적 연구를 비롯한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유라시아대륙 남쪽 해안경로를 따라 한반도로 먼저 이주해온 다수의 더운 기후에 적합한 체질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북아 고인돌문화권 고인돌의 지상구조

1) 참고 선행 논문

- 조기호, 1995, 백제왕릉의 입지선정기준에 관한 고찰 - 용진사비왕도시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0, 397-424.
_____, 1998, X-energy맥의 특성 및 지기맥과의 관계, 한국정신과학회지 2(2), 63-71.
_____, 2001, 彌勒寺 大塔의 입지와 x-energy맥과의 관계, 한국정신과학회지, 5(2), 76-85.
_____, 외 1인, 2003, 고창 고인돌 입지특성 분석, 한국정신과학회지 7(1), 47-66.
_____, 2006, 인간의 공간 이동 방향성 분석, 2006 한국지역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137-160쪽.
_____, 2006, 風水地理 穴處에서의 人體反應 調査 - 고창 고인돌입지 穴處를 사례로 -, 도교문화연구 24, 375-402.
- 2) 穴處는 전고에서 사용된 결절지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며, 고인돌풍수에서의 혈처는 인체경락과 같이 하나의 脈에 다수가 존재하는 穴의 의미로 표현되었다(참조: 朱子 山陵議狀: “蓋地理之法, 譬如針灸, 自有一定之穴, 而不可有毫釐之差.”). 그리고 고창 고인돌 입지탐사결과와 4국시대부터 풍수지리학의 혈치입지론이 적용되어 축조된 사찰이나 분묘의 입지탐사 결과는 재현한 BPE법을 학습한 탐사자만이 반복재현 가능하기 때문에, 혈치탐사용 정밀계측기가 개발되기 전까지, 절대적 객관적 사실이 아닌 상대적으로 확인된 사실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제약점을 지닌다. 이러한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혈처를 계측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과 혈처에서의 인체반응변화에 관한 학제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도면 1. 죽림리 매산 회동모텔의 고인돌 입지 형치(결절지)

(출처: 조기호의 1인 2003a, 60쪽)



사진 1. 혈처 안에 위치한 단축형 고인돌 2513(도면 1 참조)

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규칙을 지니고 있는 것도 함께 확인되었다. 첫째, 고인돌의 덮개돌 두께와 받침돌 높이는 반비례하는 구조특성을 지닌다. 둘째, 받침돌의 높이가 높을수록 배흘림양식과 주춧돌 공법이 적용되었다. 셋째, 동북아 고인돌문화권 남쪽으로 갈수록 덮개돌의 두께가 두껍고, 북쪽으로 갈수록 받침돌의 높이가 높은 고인돌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현재 남북 고고·인류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인돌형식 분류 및 명칭문제에서는, 개념 파악이 용이하며 사용하기 편리하고 남북이 불신을 배제하고 상호 인정하며 언어와 문자사용의 전제조건인 공공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상에 무덤방을 설치하고 무덤방의 긴 변을 형성하며 비교적 길고 높은 두개의 받침돌 위에 덮개석을 설치한 고인돌은 장축형으로, 지하에 무덤방을 설치하고 짧고 낮은 다수의 기둥식 받침돌 위에 덮개석을 설치한 고인돌은 단축형으로, 그리고 지하에 설치한 무덤방을 받침돌 없이 덮개석으로 덮은 고인돌은 무족형으로 분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풍수지리는 한국의 고유문화자산으로, 특허 등록된 접지건축법을 이용하여 혈처를 거주지화 하거나, 휴양지 및 질병치료장소로 활용하는 등 관광컨텐츠로 개발하고, 풍수지리체험 관광S/W도 운용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와 유사한 국제적 관광지 개발사례로는 일본 나가노현 가미이나군 하세무라 마을의 남알프스 생애학습센터, 미국 Sedona의 명상 및 수련센터, 중국 무한 연화산의 원극학회 수련시설 등이 있다.